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후원미사는 15일, 5월 후원미사는 20일, 6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830,000	전월아월금	1,821,738
지 로	2,642,839	우리은행	3,605,130
국민은행	3,916,000	하나은행	901,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880,000
외환은행	657,500	제일은행	120,000
농 협	1,170,000	기업은행	335,010
우 체 국	35,000	교구보조	477,521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벧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총당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4,825,000	잔액(이월금)	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3 / 제33호

펴낸날 2019. 3.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명동에 회의가 있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파고다 공원을 지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장소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셔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장기판을 여러 개 두고서 내기장기들을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지금은 좀 뜸하지만 20대 군복무시절 동료들과 장기나 바둑을 많이 두었던 예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옆에서 훈수를 두거나 지켜 볼 때는 잘 보이는 수가 직접 자리에 앉아 말을 옮기거나 바둑알을 내려놓을 때는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훈수를 둘 때는 본인 실력보다 두 세 급수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른바 욕심 때문입니다. 훈수를 둘 때는 없어지는 승부욕이라는 욕심이 당사자가 되면 부지불식간에 생기게 되고 이내 수를 더 내다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2년 3년이면 소임이동이었던 저 역시 지금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짐들이 늘어갑니다.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던 시절에는 이삿짐을 쌀 때마다 쓰지 않던 물건, 쓸모없는 물건들을 당연하게 정리하고 처분하고 했었는데 이삿짐을 쌀 일이 없으니 잡동사니가 늘어만 갑니다. 박스에 정리되지 않은 채 수북이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보면서 이것 역시 내 순간순간의 욕심의 결과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교회는 단식과 자선을 권고합니다. 단식과 자선은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단식과 자선은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동 장치와 같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무엇이 지나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는 블랙박스라고 같습니다.

사순 시기는 결국 늘 차로 다니던 길을 한 번쯤은 산책하듯 걸어서 가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그 동안 욕심에 눈이 가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감추어진 의미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숨 쉬는 것,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안에 숨겨진 소중한 선물들을 욕심 없이 관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난 3월 9일에 법인이사장 유경춘 주교님과 그 외 이사진과 운영위원 참석으로 제3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과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주민들이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필리핀 공동체 소식*

필리핀 공동체 담당 사제인 알프레도 신부님께서 서품 2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의 고충에 찾아가고 힘쓰시는 신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상호문화센터에서는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이수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2019년 1학기 수업이 개강하였습니다. 수준별로(한국어 초급, 한국어중급(1,2), 한국사회의 이해) 운영하고 10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 교사들의 소통과 공감으로 이주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한국생활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제12회 베들레헴졸업식

신선영 라파엘라 수녀님 부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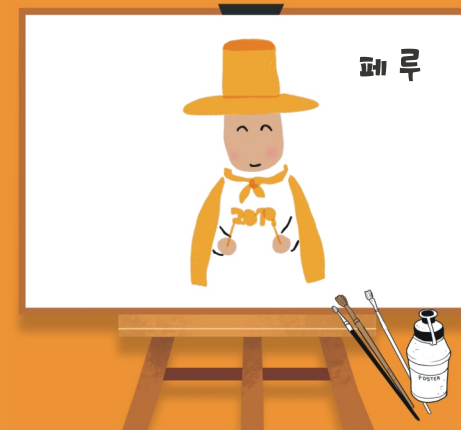
문화알림 설명절 2편



중국에서도 춘절에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는데 반드시 빨간색 봉투, 즉 '홍바오(紅包)'에 세뱃돈을 담아서 줍니다. 이는 중국에서 빨간색은 행운과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문 앞에 福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는데, 그 래야만 복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춘절의 대표음식은 자오즈(餃子)로 한국의 물만두와 비슷합니다. 오래 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자오즈(交子)와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먹는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춘절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폭죽입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는 귀신을 쫓는 풍습 때문입니다. 폭죽 소리가 클수록 귀신이 더 무서워한다는 믿음과 과사육 탓에 불꽃놀이를 더욱 화려하고 크게 터뜨리는 경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몽골에서 설날을 '차강사르'라고 부릅니다. '차강사르'는 '하얀 달'이라는 뜻으로 몽골에서는 흰색을 평화, 순수 등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색으로 여겨 이날이 몽골 최대의 길일이라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설날에 고향에 가서 친척을 방문하고 손님을 맞이하여 미리 준비한 명절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설날에는 양고기와 소고기로 만든 '보쯔'라는 찐만두를 만들어 얼려 놓아 손님들이 올 때 마다 우유차와 함께 내어 찜니다. 몽골인들도 한국처럼 세배를 하는데 설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집 안 어른에게 "하덕"이라고 하는 실크로 만든 천을 들고 서서 세배를 한다. 이 때 모자를 꼭 씌야 합니다.



페루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가장 큰 명절로 자정과 동시에 폭죽을 쏘아 올리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페루에서의 노란색은 금과 행운을 상징하여 거리에는 노란색의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가루를 뿌리기도 하며 속옷까지 노란색으로 입습니다. 자정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은 포옹하고 새해를 기원하며 함께 모여 칠면조나 닭, 돼지고기 등을 먹습니다.